

네가 우주와 세상과 땅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

성경말씀: 욥38:1-41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해서 32-37장까지 6장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 진술

1.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33), 2. 정의로우시다(34-35), 3. 위대하시다(36-37)

지난 주 엘리후의 마지막 설명과 권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하늘을 보라. 사시사철을 보라. 결론: 37장 23-24절

하나님이 나타나심

엘리후가 언급한 폭풍우가 나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말씀하심(38:1), 4장 세 친구와 엘리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묘사,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여 주심

이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말로, 자연계 연상으로 설명하였으나 다 실패, 코끼리 설명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자 드디어 욥은 그분 앞에 복종함

“하나님의 대답은 이론적 설명이 아니다. 그분 자신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4장에서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과 자연계의 일들을 두고 77개의 질문을 던지시며 주석까지 다신다.

이유: 욥13:22,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들어가서 대답하겠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 심판정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 주시려고

1. 내가 만든 창조 세상을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38:1-38), 창조 때의 파워와 지혜
2. 내가 만든 창조물을 네가 감독/관리할 수 있느냐?(38:39-39:30), 섭리, 욥의 1차 반응(40:1-5)
3. 내가 만든 창조물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40:6-41:34), 공룡과 마귀, 욥의 2차 반응(42:1-6)
4. 결국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킴(42:7-17).

주님의 이름 여호와가 등장함(38:1, 40:1, 3, 42:1, 7 등 총 13번)

욥기 1-2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음.

출3:13 이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와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다. <----->

1. 내가 만든 창조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38:1-38)

욥의 자랑: 나는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 하나님의 대답(2), 여기의 이자는 엘리후가 아니라 욥

욥은 하나님에 대해 진리를 말하였으나(42:7) 겸손함이 없었다(42:7).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음을 몰랐다.

겸손의 비결: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1. 우주와 세상 창조(4-7), 읽고 설명, 건축자처럼 우주를 지을 때의 모든 것 설명

심지어 새벽별(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지름(7)

“네가 어디 있었느냐?”(4), 아느냐(5), 6-7절 읽고

2. 바다를 보라(8-11). 창1:1-3, 처음 바다, 물을 보아 대륙 만들(창1:9)

바다는 태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물들을 모으니 터져 나왔다.

누가 그 일을 하였느냐?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에만 바다가 있다. 지구 표면은 71%가 바다, 태평양이 가장 크다(표면의 30%),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트렌치 11킬로미터, 땅보다 산맥이 더 많다. 숨 쉬는 산소의 50% 이상이 바다에서, 바다 물은 움직이며 지구를 돈다. 1000년에 한 번씩, 25만 종의 생물,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제 겨우 바다의 5%를 이해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3. 해를 보라(12-15), 12절 읽고, 마치 사령관처럼 해에게 명령하고 뜨고 지게 하심

해의 지름 139만 2천 킬로미터(지구의 109배), 무게는 지구의 33만 배, 지구를 100만 개 넣을 수 있다. 1초에 220킬로미터를 움직인다. 표면 온도 5500도씨, 중심 온도 1500만도씨

4. 11개 질문(16-24), 16절 읽고, 창조 세계의 엄청난 크기, 바다 깊은 곳(16절, 약 11킬로미터) 땅의 너비(18절) 네가 아느냐(21), 눈과 우박(22)

5. 비(25-28), 늘 접하는 비, 25절, 26절 아무도 거하지 않는 데도 비를 내려 관리한다.
크기 0.1-9mm, 비가 내리는 속도=시속 32킬로미터
광물이 섞이면 컬러 비가 내린다. 고기 비도 내린다.
6. 얼음(29-30), 우박과 서리의 형성
이쯤 되니 그만하시라고 하려는데 하나님은 더 나가심
7. 우주 공간의 별들을 보라(31-33), 별자리, 이것들의 움직임이 내가 아느냐?(33)
 1. 별들의 수: 무한대, 그런데 하나님은 수효를 아시고 이름을 아신다(시147:4)
 2. 태양계의 모든 별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이 있다. 태양의 무게가 98.8퍼센트, 0.2퍼센트가 나머지
 3. 이런 태양이 은하수에만 1,000억 개, 지구는? 우리는 이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다.
8. 구름들(34-38)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보낼 수 있느냐?
내 파워와 지혜를 네가 조금이라도 아느냐?

2. 내가 만든 창조 세상을 감독할 수 있느냐?(38:39-39:30)

욥 앞에 6마리 짐승(사자, 들염소, 암사슴, 들나귀, 유니콘, 말)과 5마리 새(까마귀, 공작, 타조, 매, 독수리)를 가져오심

1. 38:39, 41, 39:1, 13 19, 26, 27 등 설명

이 모든 것들의 삶을 묘사하신 뒤 “이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은 내 몸 하나, 가정 하나 바로 돌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모든 것, 심지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 다 돌보신다. 짐승과 날짐승의 살고 죽는 것도 유니콘의 경우 힘이 워낙 세서 사람이 다룰 수 없다(9-10). 그런데 내가 먹고 재운다.

이것도 못하면서 내가 나를 만나 재판장에서 변론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질문(40:1-2)

나와 함께 재판하러 가고 싶다고 했으니 이제 대답해 보아라.

욥의 1차 대답

1. 나는 비천한 자이다. 더럽고 추한 사람이다(4).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재판장에 갑니까?
과거에 욥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을 막았다(29:9).
세 친구들에게도 그러하고 하였다(21:5).
2. 이제 욥은 스스로 자기 입을 막았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할까 봐.
3. 우리 스스로 입을 막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결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유한하므로 다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판박이
그래서 이성과 양심 그리고 자연세계를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다(롬1:18-19). 모른다고 하면 짐승
그런데 사람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21-23).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3:23).

하나님을 알려면 입을 막아야 한다. “나는 비천한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행

우리는 우주와 세상과 땅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나를 아는가? 창조자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지력, 센스, 겸손이 있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